

배포일	2016. 1. 20.(수)	배포담당	홍보팀
담당부서	발전기금 기획팀	문의	변영현(02-871-1621)

제목: 금천 조흥연 대표이사

서울대 생활대 '조흥연 가족기금' 1억원 쾌척

- 농업회사법인 금천 조흥연 대표가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'조흥연 가족기금(조성주, 조영환, 조성은)' 1억원을 쾌척했다.
- 2016년 1월 20일(수) 총장실에서 진행된 감사패 전달식에는 성낙인 총장, 조흥연 대표와 가족, 황금택 생활대 학장을 비롯해 주요 교내 인사들이 참석했다.
- 성낙인 총장은 "창조적 기업가이신 조흥연 대표님은 금천기업을 축산물 유통전문업체로 성장시키신 우리 사회의 선구자"라며 "이번 기금은 생활대의 비전을 실천하고, 학생들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헌신할 수 있도록 소중히 활용할 것"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이어 조흥연 대표는 "사회가 있기에 각각의 개인이 노력해 성장할 수 있고, 기회를 통해 받은 혜택으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"이라며 "많은 경영인들이 사회봉사와 기부로 기여한 작은 일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기억하고 동참하길 바란다"고 말했다.
- 조흥연 대표는 자수성가형 CEO로 일찍이 1970년대부터 축산업계에 진출해 사업을 일궈왔으며, IMF 시절 소비자들이 도매가격에 값싸고 질이 좋은 육류를 접할 수 있게 축산업 대형 매장 시스템을 개발해 유통혁신을 이룩한 기업가로 유명하다. 더불어 조 대표는 2009년 국내 최초로 축산업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뒀으며, 지난해 9월에는 동원그룹과 M&A를 통해 금천을 글로벌 기업으로 한층 더 성장시켰다.
- 최근 10년간 명절마다 300인분 상당의 한우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조흥연 대표는 1995년 국제라이온스 클럽에 가입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봉사를 이어왔다. 또한 서울대 생활대 공개강좌인 식품영양산업 CEO 과정(FNP) 7기를 수료하고, FNP 7기 원우회장으로 활동하며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.

(사진설명: 협약서 서명 후 성낙인 총장(左)과 조흥연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)